

# 美 연준, 금리 3.50~3.75% 동결…“인플레 다소 높아”

지난해 3연속 인하 후 올해 첫 FOMC 회의서 속도 조절  
마이런·월러 0.25%p 인하 주장…한미 금리차 1.25%p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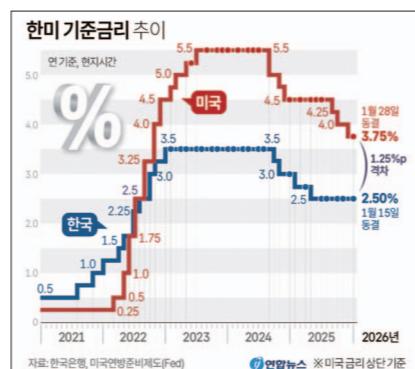
연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이같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P) 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인하 행진은 이로써 멈추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 (%)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은근히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연준은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실한 속도로 확장돼 월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연준은 또 ‘최대 고용과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두 가지 목표의 양측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이번에도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가운데 파월 의장 등 10명은 금리 동결 조치에 찬성했다.

반면,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등 연준 의사 2명은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를 지냈고, 월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 중인 차기 연준 의장 후보 4명 가운데 1명이다.

연합뉴스

## 미 이민단속에 한인 ‘공포’…입양인도 위협 느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소속된 이민 단속 요원들의 무차별 단속으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들도 극심한 공포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아이작 리 목사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CE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 쉼터 주차장에도 최소 두 번 차를 몰고 들어 덕쳤다”고 말했다. ICE 단속이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줘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이웃들이 많다고도 전했다.

그는 “한 식료품점 주인은 지금 영향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한다”며 “코로나 때는 매출이 10% 줄었는데 지금은 매출의 60%를 줄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들은 외출을 두려워해 한 달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같은 위협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입양인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다.

현재 미네소타주에는 한인 약 2만7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5000여명은 입양인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콜롬비아 항공기 추락  
“탑승자 15명 모두 사망”

28일(현지시간) 콜롬비아에서 운항 중이던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계장관이 밝혔다.

콜롬비아 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쿠타~오카냐 노선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교신 두절 상황과 관련한 수색을 통해 한 마을에서 (항공기) 추락 잔해를 발견했다”라며, 생존자는 없다는 언급과 함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장관 설명에 따르면 이 항공기에는 승객 13명과 기장 등 승무원 2명이 태고 있었다.

연합뉴스

#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